

# 조중입말번역에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

리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는 리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써먹을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97페이지)

조중번역에서는 글말과 입말번역을 잘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으며 특히 입말의 풍격을 살려 번역하는것은 글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글말과는 다른 풍격을 가진 입말에 대한 번역에서는 입말의 어휘적특성과 문장론적특성에 따라 어휘선택과 문장조직을 잘해야 한다.

입말언어행위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언어행위이기때문에 듣는 사람이 귀로 듣고 그것이 무슨 말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번역해야 한다. 그것은 입말이 비록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입말 그자체를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언어생활에서 대화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번역하여야 입말체의 특색이 살아나기때문이다.

입말이 주로 쌍방간의 교제를 위주로 하는 언어행위인것만큼 그에 대한 번역에서는 될수록 통속적인 말, 대중적인 말을 골라쓰고 전문용어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은 피해야 한다.

조중입말번역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어휘적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입말의 어휘적특성을 살려 번역하자면 관습적인 어휘, 입말어휘, 어투조사의 사용방법, 생략과 삽입, 반복과 같은 수법들을 잘 알아야 한다.

어휘선택에서 관습적인 언어사용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실례로 《어서들 옷 벗고 땀을 좀 들이시오.》라는 말에서 《옷 벗고》를 《脱衣服》라고 번역하면 관습적표현에 맞지 않으므로 《宽宽衣服》라는 표현을 써서 《大家快宽宽衣服, 落落汗.》으로 번역해야 한다.

글말어휘와 입말어휘는 차이가 있으므로 옳게 가려써야 한다.

레: 글말	입말	
武术	把势	무술
父亲	爸爸	아버지
日班	白班儿	낮교대
不倒翁	扳不倒儿	오토기
黑板报	板报	벽보
半个	半拉	절반
空中	半空中	허공
中间	半中腰	가운데
受冤枉	背黑锅	루명을 쓰다

중국어의 특징적인 儿화어휘도 입말의 특색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레: 글말	입말	
有意思	有意思儿	재미있다
有感情	有感情儿	감정있다

搭个桥	搭个桥儿	다리를 놔주다
昨天	昨儿个	어제
人	人儿	사람
评价	评价儿	평가하다
新房	新房儿	신방

같은 어투조사라고 해도 글말에서 쓰는것과 입말에서 쓰는것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므로 어투조사를 잘 가려써야 한다.

실례로 글말에서는 《吗, 吧, 呢, 的, 了》와 같은 어투조사를 쓰고 입말에서는 《吗, 嘛, 呗, 呗, 哟, 啦, 嘿》와 같은것을 쓴다.

레: 그래도 네가 가보려무나.

还是你去呗。

밥이 있으면 먹을게지 날 왜 찾는거냐?

有饭你自个儿吃呗, 还叫我干吗呀?

모두들 힘써 일하자구!

大家努力干呗!

어휘의 생략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어문장에 쓰인 어휘를 한두글자 생략하면 입말의 특성을 살릴수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언어환경을 고려하면서 가능한것 말을 생략하여 짧게 만드는데는 입말체의 요구로 된다. 때문에 입말은 문장구조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

실례로 두 사람이 각각 1번빠스와 2번빠스를 탈 때 《넌 1번을 타라, 나는 2번을 타야 해. 안녕히.》라고 한다면 《你1路, 我2路, 再见!》으로 번역할수 있다. 이 말을 일반적인 말로 번역하면 《你乘1路公共汽车, 我要乘2路公共汽车。》로 되는데 그것은 언어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

기차표를 살 때에도 생략을 많이 한다. 《16열차 청진행표 한장 주시오。》를 《16次清津一张。》이라고 번역해야 하며 일반적인 문장처럼 《我要买16次车到清津的火车票一张。》으로 하면 맞지 않는다.

다음의 레문번역에서 괄호안의 단어는 생략한것이다.

레: 나는 그가 가겠다가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가겠다는게 아니겠소.

我说不让他去, 可他非要去(不可), 真是。

빨리 가서 택시나 불러오라구.

你快去叫(一)辆出租车来。

아침 일찍 가면 녹거리를 살수 있어.

早上去早, 可买便宜(货)。

단어삽입법도 잘 활용해야 한다.

입말체에서 단어의 삽입법은 단어결합을 분리시키고 그사이에 다른 단어를 삽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삽입법에서는 《什么》를 많이 리용하고있다.

레: 덤비기는 왜 덤벼? 着什么急?(急什么?)

대상은 무슨 놈의 대상? 对什么像?(找什么对象?)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要什么紧?(有什么要紧?)

관심하기나 새나? 关什么心呀? (关心什么呀)

사실이 아니라 오실이라도 안돼. 别说是事(四)实, 就是五实也不行。

《了》, 《过》, 《上》, 《起》에 의한 삽입법도 있다.

레: 흥이 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덤벼댄다.

高了兴, 他就没命地干。

절은 안하니? 이미 했습니다.

不敬个礼吗? 敬过礼了。

짐은 이미 다 썼다.

已经打上包了。

재수가 없군.

倒起霉来了。

《个》와 《一》의 삽입도 입말체의 풍격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레: 고맙다고 절해라. 敬个礼谢他。

눅거리를 사자. 买个便宜。

좀더 노력하자. 再努一把力。

좀 성의를 다해주시오. 请尽一点心。

술어와 보어사이에 보어의 규정어로 되는 대명사를 삽입하기도 한다.

레: 내가 개량을 해야 돼. 改我的良。

그를 달리 생각말라구. 别介他的意。

성의가 고맙습니다. 领你的情了。

자네한테 환기시키네. 提你个醒。

반복의 수법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반복의 수법은 입말체에서 가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입말체의 풍격을 잘 나타내고있다.

레: 그는 나의 말을 막아나서면서 《아니아니, 그런게 아니야.》라고 하였다.

他拦住我的话, 说: “不不不! 不是那样。”

그는 이 사람이 이모저모로 촌티난다고 말하였다.

他说这个人怎样怎样一身土气。

《A不A》식의 반복수법도 있다.

레: 단 한토막도 안돼. 一段也不段。

돈은 무슨 놈의 돈. 什么钱不钱。

구장이고 나발이고. 管他村长不村长的。

문제가 되건말건 상관이 뭐야. 管它问题不问题。

조중입말번역에서는 다음으로 문장론적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입말의 문장론적특성에 맞게 번역하자면 어순과 단어의 가결합성문제를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

조중입말번역에서는 우선 어순문제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글말체의 문장들에서 어순은 일반적으로 정상어순으로 되어있지만 그에 비하여 입말체에서는 어순의 변화 즉 문장성분의 위치변동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흔히 사람들은 말할 때 알맹이를 먼저 강조하고 그뒤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므로 입말에서는 주어와 술어, 수식어와 피수식어, 술어와 보어사이에서 위치변동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며 이때의 위치변동은 대부분이 추가설명식으로 된다.

실례로 《우리 룡구뿔은 어제 잃어버렸다.》를 정상번역하면 《我们的篮球昨天丢了.》로 되지만 다음과 같이 번역할수도 있다.

례: 昨天丢了我们的篮球。(주어의 뒤추가설명)

昨天篮球丢了, 我们的。(규정어의 뒤추가설명)

我们的篮球丢了, 昨天。(상황어의 뒤추가설명)

다른 실례로 기관책임자가 《사람들에게 회의실에서 회의한다고 알려시오.》라고 지시하였다면 《你通知他们开会, 在会议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어순변화를 리용하여 입말체풍격을 나타낸것이다.

조중입말번역에서는 또한 단어의 가결합성문제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는 주어와 술어, 술어와 보어간의 결합관계가 엄격히 규범화되어있다. 이 규범을 어기게 되면 중국말이 되지 않는다.

실례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라고 할 때 전통은 《传统》으로, 《계승》은 《继承》으로, 《발전시킨다》는 《发展》으로 의미적대응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대응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며 단어들의 결합규범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어휘의미적대응만을 하여 《继承和发展革命传统.》으로 번역할수 없다. 왜냐하면 《传统》은 《发展》과 결합되지 않기때문이다. 중국어 《传统》은 추상명사로서 《发展》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기때문에 《发扬》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글말체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단어결합규범이 적용되고있다.

그러나 입말체에서는 그 규범을 어기고 자유롭게 결합될수 있다.

《식당에 가서 먹는다.》는 《去食堂吃.》가 아니라 《吃食堂.》으로 번역한다.

《吃食堂.》은 논리적으로는 단어의 결합가능성이 없지만 언어실천에서는 흔히 쓰인다.

《저가락으로 먹는다.》도 《用筷子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결합이고 입말로는 《吃筷子.》라고 한다. 위의 실례들을 보면 《식당을 먹는다.》, 《저가락을 먹는다.》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입말체에서는 그것이 허용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중번역에서 글말과 입말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어휘적, 의미적, 문장론적대응을 하는 수법과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내어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것이다.